

## 신도시엔 사찰없다?

관교, 교회 17·성당 1곳·‘사찰 1곳 협의중’

개발이전 용지확보·종단차원 요구 등 대응 절실

3월 29일 주택청약이 시작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판교신도시. 수용인구 9만명에 달하는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사찰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신도시내 종교용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주거편익시설로 분류되는 종교시설용지는 총 19곳이 배정됐다.

종교시설용지의 우선 계약자로 선정된 곳은 교회가 17곳, 성당이 1곳이며, 사찰에 할당된 용지는 삼평동에 자리 잡은 영운정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와 현재의 위치에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공급의 원인은 그동안 판교지역에 터를 잡고 선 교회들을 펼친 계획교회와 성당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총 1만2645평에 달하는 판교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올 11월께 수의 계약 형태로 이들 시설에 우선 분양될 계획이다. 그렇다고 판교신도시 종교시설용지를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계약자로 선정된 교회와 성당의 분양권을 웃돈을 얹어주고 매입할 수 있다. 최소 216평에서 최대



는 한결 수월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경우처럼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불교계는 사찰용지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낙후지역 또는 취약지역에 대한 포교를 등한시하는 불교계의 풍토와 개발계획이 이미 입안되고 난 뒤 종교시설용지 확보에 나서는 불교계의 ‘뒷방’ 대응이 나온 결과다. 개발계획을 입안할 때 종교시설용지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를 외부 종교단체에 불하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주택분양을 시작한 판교신도시는 일례에 불과하다. 개발이 진행 중인 김포, 화성(종교시설용지 분양중), 아산을 비롯해 개발을 앞두고 송파, 대전, 수원, 송도, 양주 등도 판교신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

서울 신내동 개발 당시 어렵게 종교시설용지를 확보한 바 있는 법장 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이미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분양권이 없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며 “사찰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종단 차원에서 종교시설용지를 지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원 기자 bypark@buddhapia.com

2400여평의 매입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선 계약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에게 추가적으로 종교시설용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외부 종교단체의 요구를 감안해 추가적으로 종교시설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종교시설용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확보

## 천태종 14대 총무원장 정산 스님 임명

종정 도용 스님 지명, 정기총의회서 인준 ... 9일 취임법회

천태종 총의회 의장 정산 스님(사진)이 대한불교 천태종 제14대 총무원장으로 임명됐다.

천태종은 3월 27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제76차 정기총의회를 열어 종정 도용 스님이 지명한 정산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3월 1일 운덕 총무원장 스님의 사퇴이후 총무원장직무대행 스님 체제로 운영돼 오던 천태종이 단일법회에 새 총무원장을 임명하



득도한 정산 스님은 재무부장과 사회부장, 부원장 등 천태종 총무원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으며 감사원장과 총회부의장 등도 지냈다.

며 총무원장 수반의 공백을 빠르게 채웠다.

1971년 천태종 중흥조인 상월 대조사를 은사로

제14대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취임식은 4월 9일 오전 11시 흥본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일 천자암 조실 할안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마포 FM 흥성이 활아버지



시방세계 9면 30배기도 정진현장

아프리카에도 불교있다 16면

월정사 수행학림 18~19면

김백봉 교수 헌정무대 23면

전국 차추제 안내 26면

##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청정운동 출발!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3월 29일 조계사에서 ‘불자다운 삶을 위해 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자’는 청정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청정운동추진위원회는 올해 대구(3~4월), 부산(5~6월), 광주(7~8월), 전북(9~10월), 서울(11~12월)에서 전국 순회법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전 충남(3~4월), 충북(5~6월), 강원(7~8월), 인천 경기(9~10월), 제주(11~12월)에서 순회법회를 열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해인사 대장경판 ‘세계 기록유산’ 신청

문화재청, “동북아 역사 담은 기록물”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 경판’과 ‘조선왕조 의궤’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 신청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초기 목판 제작술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 경판’은 고려시대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8만7000여장의 경판들로 동북아시아의 정치, 문화, 사상의 흐름과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역사 기록물이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 경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대장경판의 보관시설과

역사적 기록물이 모두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게 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 일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종단협, 대표단 파견 ... 일본 불교계 ‘난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스님, 이하 종단협)는 3월 30일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해 일본 불교계 대표들과 한국인 징용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대표단은 종단협 사무총장 홍과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단장으로 총지중 우승 총리원장·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일본쪽에서는 한중일 국제교류협의회 소속 회원종 각 종단을 대표하는 10여 스님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

하지만 일본 불교계는 그동안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보여 왔다. 한국인 희생자의 유골확인 및 봉환이 간단한 작업이 아닌데다 약 80개에 이르는 일본 불교 종단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일 기자

## 불교광고? ad.buddhapia.com 을 클릭하세요

불교계 최초로 온라인 광고 사이트가 개설돼 화제다. 불교포털 사이트 부다피아는 최근 광고와 불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애드부다피아(http://ad.buddhapia.com)를 오픈했다. 애드부다피아는 일반적으로 불교계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발행주기에 따라 적게는 3일, 많게는 2주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실시간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요한 행사나 법회를 알리고자 하는 데 시간이 맞지 않아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오래동안 홍보를 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또한 부타뉴스(www.buddhanews.com)와 부다피아(www.buddhapia.com)와의 연계를 통해 이미지는 물론 역동적인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2004-8213-7 김두식 기자

월정사 수행학림 동참 (033)332-6661~5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 이왕 세상에 나왔으니, 한바탕 멋들어지게 살아라!

수행자의 틀에 갇히지 않고 거침없이 도를 굴린 대자유인 경봉 큰스님 이야기

## 야반삼경에 첫불침을 주어라

정찬주 장편소설 전 2권 | 각권 9,500원

사바세계를 무대 삼아 한판 신나게 놀아보는 연극이 바로 우리 삶이다!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수행자의 극정에 도달한 경봉 스님이 몸소 실천한 멋들어지게 사는 삶! “그대들도 불만을 알게 되면 앞으로 멋들어지게 살 수 있지” 하고 구수하게 반문을 하다가 지루할 만하면 참을 참던 경봉 스님은 언제 어디서든 거침없는 대자유인이었다. 가을이 되면 잎은 떨어뜨려 자리를 뜨지 않아 주인이 달려와 “일본들이 스님 얘기를 다 한다는 추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통사정을 할 정도였다. 겨울 내내 안간에 일음을 들고 수행하다가 일간이다 말가지고, 흙을 밟기 위해 곡을 베풀던 파산하는 병 민간 정신의 극정을 넘어선 초월의 수행 끝에, 문 있는 문(門)에 온 경봉 스님이 계시라는 체험이 있!

● 노사를 시봉했던 상좌로서, 경봉 스님의 친면목이 굵직하거나 왜곡되지 않았음이 노심초사했지만, 정찬주 씨는 경봉 스님에게서 남기신 말씀과 일화를 토대로 스님이 옆에 계신 듯 생생하게 환상시켜 주었다. | 불도사 극락암 선전장 명정 스님